

(재)영월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88호

2026년 제29회 김삿갓 문화제
제22회 김삿갓 문학상 결과 공고

2026년 제29회 김삿갓 문화제 문학프로그램

제22회 김삿갓 문학상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지원신청 접수 결과 및 선정 결과

☐ 지원신청 결과

구분	접수	예심 결과	본심 결과
본상	총 228작품	총 7작품	박세희 [별들의 보고서]
우수상	총 4작품	총 1작품	유호근 「고향의 강」

2 심의 총평

본상 : 박세희 시집 「별들의 보고서」를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대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면서 삶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시집으로 주목할 만하다. 시류를 쉽게 따르지 않으면서 시의 본류를 지켜내는 곳곳함이 있다.

현대인의 비인간화된 삶을 잔잔한 서정으로 고발 또는 비판하고 있다.

최근 우리 시의 난해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이 시집은 시가 견지하는 적절한 애매모호성을 드러내면서도 그 속에 명징한 기운을 내재하고 있어 신뢰가 간다.

「어제」는 골목에서 일종의 ‘로드 킬’을 당한 고양이 얘기를 통해 일상에 내재하는 불안과 불길함을 맞춤형에 그리고 있는 시다. 「이사」는 태어남과 존재함, 살아감과 사라짐을 서로 대비하면서 존재의 허무를 드러내는 시다.

우수상 : 유호근의 시집 「고향의 강」을 우수상에 올린다. 고향 영월을 배경으로 한 몇 편의 시가 주목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농촌 소외나 이에 따른 정서의 고갈에 대한 표현이 돋보인다. 자연스럽게 영월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점도 팬층은 시적 성취다. 한해 한용운의 시 정신을 잇는 시의 표현과 시적 구축이라는 면에서도 일정하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향후일정

☐ 시상식

○ 일시 : 2026년 10월 16일(금) 15:30

○ 장소 : 난고 김삿갓 문학관 야외 광장